

2021 DMZ 포럼

새로운 평화의 지평을 열다

2021.5.21(금) ~ 22(토) | www.dmzforum.or.kr

[평화운동 협력세션 I-4 : 군비축소와 인간안보]

오하은 평화공공외교협력단

5월 21일 오후에 진행된 평화운동 협력세션 I-4의 '군비축소와 인간안보'에서는 각국의 평화활동가들과 함께 천문학적 액수에 달하는 군사비를 비판적으로 통찰해보고, '안보' 개념의 전환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좌장에 이용석 전쟁없는세상 활동가, 발제자에 조르디 칼보 루판네스(Jorge Calvo RUFANGES) 국제평화국(IPB) 부의장, 클로에 물러웨터(Chloé MEULEWAETER) 델라스 연구소 연구원, 토리 베테만(Tori BATEMAN) 미국친우봉사회(AFSC) 정책 애드보커시 코디네이터, 그리고 황수영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팀장이 참석하였다. 본 세션은 각 발제자들의 발표에 이어, 이에 대한 질의응답과 자유로운 토론의 시간으로 구성되었다.

조르디 칼보 루판네스 국제평화국 부의장은 현재 전 세계 GDP의 2.2% 정도에 달하는 2조 달러 가량이 군사비로 지출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소액만이 빈곤의 해결, 보편교육 등 실질적인 국민들의 생활 향상에 쓰이고 있다는 데이터를 제시하면서, 전세계 군사비지출 현황을 비판적인 시각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군사비 증액으로 인해 이익을 본 집단은 군산복합체"들이라는 점을 명시하면서, "무기를 생산, 수출하는 모든 행위들이 정상적이라고 여겨서는 안된다"고 피력하였다.

클로에 물러웨터 델라스 연구소 연구원은 군사비 지출이 국가의 무력분쟁 개입에 끼치는 영향과 군사화가 기후위기를 가속화시키는 모습을 설명하였다. 가장 먼저, 군사비 지출과 국가의 무력분쟁 개입 사이의 영향을 설명하면서 '군사경제사이클이론'에 관한 본인의 연구결과를 언급하였다. 이를 통해 "170여국의 패널 데이터 분석 결과, 군사비 지출이 늘어날수록, 그리고 무기수입이 증가할수록 무력분쟁에 개입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주장하였다. 물러웨터 연구원은 "군사화가 기후위기와 관련된다"고도 밝혔는데, 그 근거로 "군사비 지출이 늘어날수록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구체적 원인으로는 정규적인 군사활동, 무기개발, 무기생산, 무기수송, 전쟁, 전후 잔상 등의 6가지를 들었다. 또한, 현재 가설단계에 머물러 있는 '평화배당금'을 "군사비 지출의 감소로 발생하는 경제적 자원"이라고 소개하면서, "군사비 지출이 10%만이라도 감소한다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을지 상상해보라"고 호소했다.

토리 베테만 미국친우봉사회 정책 코디네이터는 미국의 활동가로서, 미국의 군사비 지출 현황과 군비축소를 위한 노력들을 소개하였다. "2019년 데이터 상 미국의 군사비가 전 세계 군사비의 38%에 달한다"며 유감을 표하면서, "올해는 6000억 이상이 기타 우선순위 정책에 쓰일 수 있도록 노력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녀는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가) 무기와 전쟁에 사용되는 많은 비용들을 줄이고 보건 혹은 주거 서비스, 기후 변화 등의 실존적이고 전 지구적인 문제들에 집중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황수영 평화군축센터 팀장은 한국의 군사비 지출 현황과 군사비 지출을 감축하기 위해 우리나라에서 행해지고 있는 노력들을 소개하였다. "국방비가 작년 처음으로 50조원을 넘어섰으며, 올해는 52조 8401억원으로 책정되었다"는 소식과 함께, "문 정부 출범 후 약 7% 정도로 과거에 비해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며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내었다. 특히, 예산과 자원은 한정되어 있음

을 강조하면서 전방위적 안보 위협을 이유로 하는 '국방비 증액'의 필요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였다. 전세계적으로 과도한 국방비로 인해 공공의료, 일자리, 환경 등 보다 시급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예산은 낮다는 점을 지적하며, '안보'의 개념을 다시 생각해볼 때임을 역설하였다. 황수영 팀장은 "군사비를 줄이자는 요구는 분단국가인 한국에서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기 어렵지만, 군사비를 줄이지 않고는 진정한 의미의 한반도의 평화와 인간안보를 이룰 수 없다"면서 "이것이 꾸준히 군비축소를 이야기해야 하는 이유이다"라며 군비축소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이어지는 자유로운 토론의 장에서는 '군사비 감축을 위한 전 세계적 연대와 운동의 필요성'이 화두였다. 물러웨터 델러스 연구소 연구원과 루판네스 국제평화국 부의장은 이와 관련하여 진행되고 있는 글로벌 캠페인을 언급하였다. 루판네스 부의장은 한국의 황수영 팀장에게 '군비 축소나 평화 어젠다를 위한 유엔 및 국제사회 논의에서 한국정부가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기도 하였는데, 황수영 팀장은 아직 종전이 아닌 휴전 상태에 놓인 한반도의 상황과 한미동맹으로 인한 한계점을 언급하며 부정적인 답변을 내어 놓았다.

발표의 역 순서로 진행된 마무리 발언에서 각 패널들은 모두 "각국의 군비 축소와 평화를 위한 노력을 이어나갈 것"이라는 약속과 함께, "이 자리에 모인 이들이 함께 협력해나갔으면 좋겠다"는 기대에 동조하며 세션의 막을 내렸다.